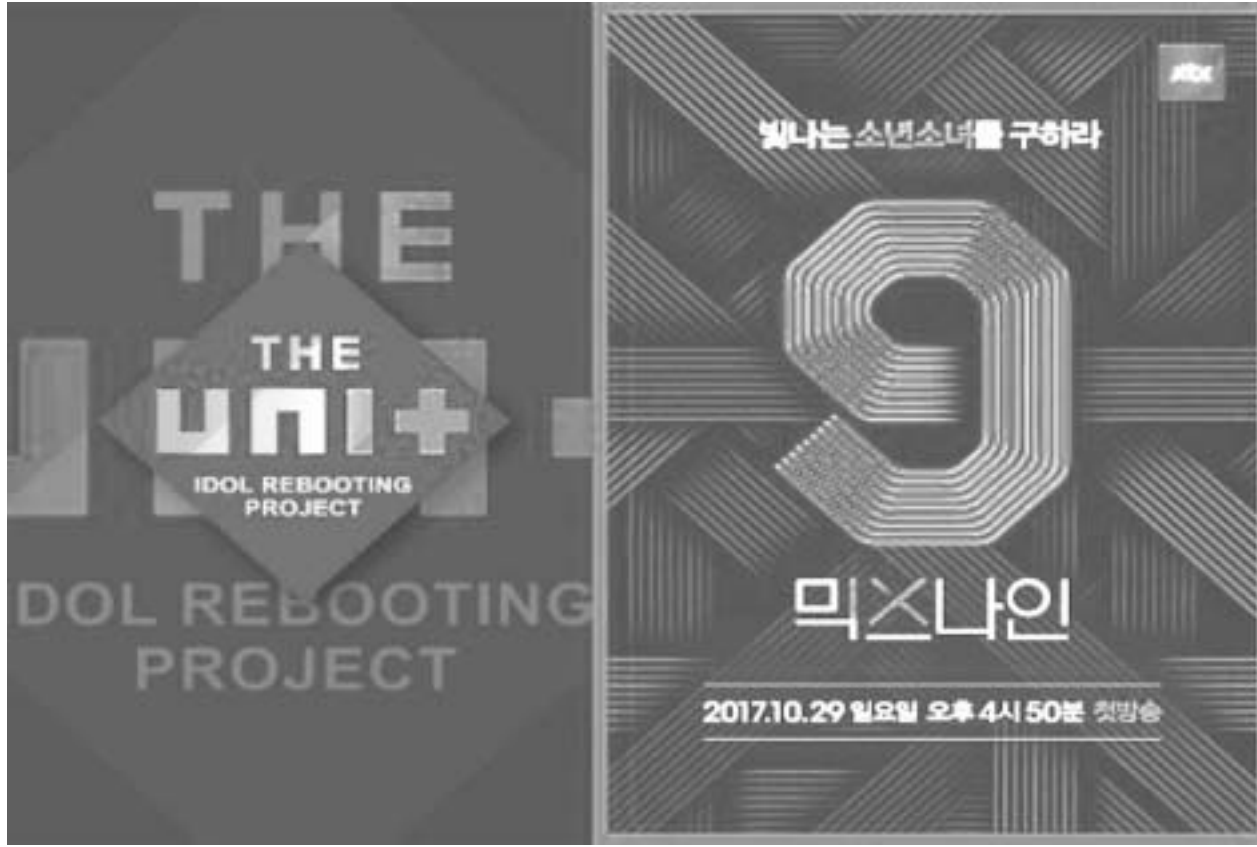


# 더유닛 vs 믹스나인, 그 속의 슈퍼스타K가 보인다



최종 목적지는 같지만 가는 방법은 다르다. '더유닛'과 JTBC '믹스나인'은 분명 각각 남·여 9명의 아이들을 선발하는 같은 목표의 오디션 프로그램이다. 이틀 두고 배일을 벗었다. KBS '더유닛'과 JTBC '믹스나인'은 분명 각자 남·여 9명의 아이들을 선발하는 같은 목표의 오디션 프로그램으로 참가자 역시 별다른 차이가 없

## 공개 오디션 vs 기획사 찾아 1차 오디션 최종 목적지는 같지만 가는 방법이 달라

자 오디션을 선보였다. 엠넷 '프로듀스 101'의 성공에 힘입어 탄생한 두 프로그램이지만 그 안에는 원조 오디션 프로그램인 '슈퍼스타K'가 각기 다르게 녹아있었다. 총 90여 기획사 500여명의 아이들이 참가, 연예계 데뷔 경력이 있고 무대 위에서 꿈을 펼치고 싶은 참가자들을 대상으로 두 번째 기회를 준다는 콘셉트를 내세운 '더유닛'의 첫 방송은 멘토군단인 비 황지열 현아 산이 태민 조현아가 1차 예선을 진행하는 모습이 그려졌다. '더유닛'은 과거 엠넷 '슈퍼스타K'나 SBS 'K팝스타'와 같이 심사위원이 공개 오디션을 진행하는 방식을 선택했다. 특히 이미 데뷔를 한 아이들이 참가자로 출연하며 마치 '슈스케'에서 예선을 거쳐 슈퍼위크 합숙을 앞둔 오디션과 비슷한 모양새였다. '더유닛'은 복설 없는 심사위원과 자극적이지 않은 편집을 차별성으로 내세웠다. 그리고 관계심사위원의 슈퍼부트나 멘토 군단이 행사하는 관대한 부트 제도를 새로운 장치로 도입했다. 그럼에도 '두번째 기회를 준다'는 프로그램 취지에 어울리지 않는 참가자나 선발 기준에 대해서는 의문점을 남겼다. 데뷔 년도 되지 않은 아이들이 등장하며 질실함과 진정성의 기준을 스스로 낮췄고 신인배우나 연습생에게 많은 방송분량을 할애하는 것도 아쉬움으로 남았다. 29일 첫 방송한 '믹스나인' 1회에서는 YG 수장 양현석과 가수 지열, MC 노홍철이 기획사를 찾아 다니며 데뷔조와 연습생들을 선발했다. 마치 '슈퍼스타K'의 지역 예선과 같은 포맷으로 과거 합격 티셔츠는 차별화된 버스로 한단계 업그레이드했다. 또 일반 대중이나 가요계 관계자들조차 잘 알지 못하는 기획사까지 나오며 재미를 더했다. 또 '믹스나인'에도 중소 기획사 연습생은 물론 이미 데뷔한 아이들 등 다양한 참가자가 나왔지만 오히려 아이들 재기라는

명분을 둔 '더유닛'보다 간절함과 진정성이 더 붙어있다. 이에 앞서 '믹스나인'은 네이버 V라이브를 통해 대표곡이자 첫 미션곡인 '저스트 댄스' 무대와 남·여 데뷔조 및 A.B.C조 총 170명을 소개, 첫 번째 투표를 시작했다. 초반 기획사 오디션으로 흥행몰이를 하는 한편 처음부터 남(72명)·여(98명)를 공개하며 팬덤 조성에 나서는 영리한 전략을 선택했다. 무엇보다 양현석과 YG라는 존재 자체로 차별화를 했다. 두 프로그램은 태생적으로 서로 비교될 수밖에 없고 프로그램을 통해 탄생하는 아이들 역시 상대 프로그램이 프리표처럼 따라 붙을 것이다. 하지만 아직은 각각 126명과 170명의 본격적인 무대나 미션, 또 합숙 등이 공개되지 않아 비교하기에는 시간이 조금 더 걸릴 것으로 보인다. 과거 '슈퍼스타K'의 성패는 예선과 슈퍼위크를 통해 모인 인기가 TOP 10 무대로 이어지는 여부가 가장 컸듯이 '더유닛'과 '믹스나인' 역시 생방송 서바이벌 전까지 일단 얼마나 화제성을 유지하면서 대중의 시선과 팬덤의 마음을 사로잡을지가 관건으로 여겨진다.

## '개콘콘서트' 新 코너 '고발부부', 속 시원한 웃음



88살의 양숙 부부가 스무살 대학생 시절로 돌아가는 '고발부부'가 있다면, '개콘콘서트'에는 결혼생활 25년 새 코너 '고발부부'가 있다. KBS 2TV '개콘콘서트'가 결혼 25년차 부부의 갈등을 코믹하게 그려낸 새 코너 '고발부부'로 통쾌한 웃음을 안겼다. 29일 방송된 '고발부부'에는 이현정, 이창호, 조충현이 출연했다. 이현정과 이창호가 결혼 25년차를 맞은 부부로, 조충현이 갈등을 풀어 보고 진상규명을 하는 진행자로 등장했다. 발언권을 얻은 이창호는 "아내의 불법 밀법 혐의 진상 규명을 원한다"면서 이현정의 화장대 사진을 공개했다. 이창호는 사진 속 달팽이, 누에고치, 마유크림 등을 지적하며 "자연에서 살아야 할 생명들이 아내의 얼굴 위에서 썩어 놓고 있다"고 말해 웃음을 안겼다. 이에 이현정이 "그것은 내만을

바로 이현정이 "돌아가셨던 아버지가 올해는 철순 잔치를 하셨다. 이게 말이 되냐"고 반박했다. 그러자 이창호는 뻔뻔하게 "유부장남에게 아버님이 세 분이 계신다. 남의 복잡한 가정사에 개입하지 말라"며 반전의 웃음을 더했다. 그러자 이현정은 참고인으로 유부장남인 유민상을 불러냈다. 이현정이 아버지가 잔치 돌아가신 게 맞느냐고 묻자 유민상은 "몇 번째 아버지 얘기 하시는 거냐? 저의 아버지가 다섯 분이"라고 말해 폭소를 안겼다. 예상치 못한 답변에 이현정은 "남편이 유부장남 아버지 잔치 치르는 3일 동안 정례식장에서 꼬박 밤을 새웠던 게 맞느냐"고 그렇게 친한 사자가 아닌 것 같다"고 추궁하자 유민상은 "나랑은 그렇게 친하지 않다. 우리 아버지랑 친한 사이였다. 나보다 더 자식같이 지냈다"면서 이창호에게 음흉한 사인을 보내 웃음을 선사했다. 마지막 카드로 이현정은 추가 참고인인 유부장남 아내와 전화통화를 하겠다고 하자 유민상은 곧바로 무릎을 꿇고 자신이 위중했음을 털어놓아 폭소를 유발했다. '명훈야 명훈야 명훈야'에서 시크한 '여사친'으로 등장 중인 이현정은 '고발부부'를 통해 꺾죽한 사투리 개그와 아줌마 분장으로 속 시원한 '썰매개그'를 선보이며 이 구역의 1인자임을 드러내는 저력을 과시했다. 또한 '고발부부'는 25년 동안 반복되는 '부부싸움'이라는 공감대 높은 주제를 청문회 형식으로 활용하며 인방극장에 빅 웃음을 선사했다.

## 워너원, 데뷔앨범으로 밀리언셀러 가수 됐다



보이그룹 워너원이 '밀리언셀러'가 됐다. 30일 YMC 엔터테인먼트 측에 따르면 워너원이 지난 8월 7일 발매했던 데뷔 앨범 '1x1=1 (To Be One)'

판매량은 72만장을 돌파했다. 이어 프리퀀 리패키지 앨범인 '1-1=0 (Nothing Without You)'는 선주문량만 50만장을 넘어섰다. 데뷔앨범으로선 이례적으로 밀리언 셀러를 기록하게 된 것. 워너원의 데뷔앨범 밀리언셀러 기록은 21세기 데뷔한 신인 그룹의 데뷔 앨범으로는 최초다. 이로써 워너원은 새로운 국민그룹의 탄생을 예고했다. 또 워너원은 이날 공식 채널을 통해 새 앨범 '1-1=0 (Nothing Without You)'의 두가지 버전 앨범 커버 이미지를 공개했다. 앨범명 '1-1=0 (Nothing Without You)' 콘셉트의 밤 하늘을 배경으

로 불안하고 반항적인 청춘의 모습을 담은 WANNA Ver. 과, 함께 모여 한장의 가족사진과 같은 모습을 담은 ONE Ver. 의 총 두가지의 상반된 이미지가 눈길을 끌었다. 오는 11월 13일 발매될 워너원의 새앨범은 데뷔앨범 'To Be One'의 프리퀀 스토리를 담은 리패키지 형태의 앨범이다. 하나가 되기 전 불안정했던 모습에서 하나가 되기 위해 완전해지는 청춘의 스토리를 담을 예정이다. 한편, 워너원은 11월 13일 데뷔앨범의 프리퀀 리패키지 앨범인 '1-1=0 (Nothing Without You)' 발매 준비에 한창이며, 오는 12월에는 서울과 부산에서 '워너원 프리미어 팬콘'을 통해 팬들을 만날 예정이다.

## 600만 눈앞 '범죄도시', 역대 청불 韓영화 흥행 4위

개봉 5주차에도 박스오피스 2위를 지키며 흥행 질주 중인 범죄도시(감독 김윤성 배급 메가박스플러스엠)가 누적관객수 584만 5,075명을 돌파하며 2017년 한국영화 흥행 4위와 동시에 역대 청불 한국영화 흥행 순위 4위에 등극했다. 여기에 곧 600만 명 관객 돌파까지 예고하고 있다. 개봉 5주차에 접어든 '범죄도시'가 29일까지 누적관객수 584만 5,075명을 동원하며, 2017년 한국영화 흥행 4위, 역대 청불 한국영화 흥행 순위 4위 기록을 내란히 세우며 한국영화의 새로운 역사를

쓰고 있다. 추석 시즌, 경쟁한 경쟁작들을 모두 물리치며 관객들의 폭발적인 사랑을 받은 '범죄도시'가 올해 개봉한 한국영화 중 '택시운전사', '공조', '군함도'에 이어 흥행 4위에 올랐다. 더불어 568만 관객을 동원했던 '타짜'를 꺾고 역대 청소년관람불가 한국영화 흥행 순위 4위를 기록,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던 흥행 반전을 이뤄냈다. 또한 개봉 5주차를 맞은 이번 주, 할리우드 대작인 '토르: 라그나로크'의 공세에도 불구하고 박스오피스 2위 수상은 물론 600만 명 관객 돌파까지 앞

두고 있어 이들이 만들어 낸 한국영화의 신기록은 과연 어디까지일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 惠山이 바라본 오늘의 운세 2017년 10월 31일 화요일 (음력 9월 12일)

★ 헤산철학연구원 010-2622-2350 ★



▶**경조** 36년생 미련을 버려라.48년생 큰 수확을 이룰 것이다.60년생 계약은 절대 안된다.72년생 회비가 교차하니 우리수는 금물이다.84년생 자리를 넘겨주지 않으려거든 멈추지 마라.



▶**사기** 37년생 혼란스러워도 점차 맑아진다.49년생 금전거래에 주의하라.61년생 귀인의 도움을 받는다.73년생 상대를 배려하는 마음을 가져라.85년생 호도하는 마음을 잃지마라.



▶**영양제** 38년생 재물을 잘 관리하라.50년생 새로운 사람을 소개 받는다.62년생 부부관계를 원만히 하라.74년생 기다림을 알아라.86년생 과한 욕심을 버리고 함께 하는 마음을 가져라.



▶**사기** 39년생 만사가 해결된다.51년생 산행을 삼가라.63년생 구설수에 오를 수 있다.75년생 이거다 싶으면 밀고 나가라.87년생 사소한 감정에 주의하라.



▶**영조** 40년생 외출을 삼가라.52년생 노력과 인덕이 비례한다.64년생 주위의 도움으로 일이 성사된다.76년생 작은 성과에도 크게 만족하라.88년생 첫술에 배부르지 않는다.



▶**중매** 41년생 화를 다스리고 건강에 유의해야한다.53년생 부부의 정이 더욱 돈독해진다.65년생 문서 계약운이 있다.77년생 손재수에 조심해야한다.89년생 꿈을 접지마라.



▶**영조** 42년생 까치가 집 주위를 맴돈다.54년생 금전거래에 주의하라.66년생 누적된 불만을 효과적으로 처리하라.78년생 순풍에 돛을 높이 올린다.



▶**영조** 43년생 마음을 고요히 하라.55년생 뜻밖의 재물은 있다.67년생 자신의 영역이 커짐을 느낀다.79년생 낫말은 새가 듣고 밤말을 쥐가 듣는다.91년생 정성을 다하면 수확은 분명 있다.



▶**영조** 32년생 출입을 삼가라.44년생 귀인의 도움을 받는다.56년생 근심거리가 생기더라도 집착은 삼가라.68년생 내자신을 알고 맘을 고요히 하라.80년생 오로지 목표를 향해 전진하라.



▶**영조** 33년생 귀인을 정성껏 맞이하라.45년생 믿음아래 덕을 받는다.57년생 목표를 크게 잡고 멀리보라.69년생 근신하고 자숙할일이 생긴다.81년생 합심하면 인덕이 크다.



▶**경조** 34년생 배려하는 마음을 길러라.46년생 건강에 더욱 유념하라.58년생 이사에 신중하라.70년생 끝까지 밀고 나가라.82년생 열심히 하면 진로 걱정은 없다.



▶**경조** 35년생 부드러움을 잃지마라.47년생 믿음을 유지하면 복을 받는다.59년생 뜻밖의 재물복이 있다.71년생 교통사고에 대비하라.83년생 책임질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니 조심하라.